

LG엔솔, 프랑스 리사이클 거점 구축... 연 2만톤 처리 목표

프랑스 1위 리사이클 업체 DBG 합작 사용 후 배터리·공정 스크랩 현지 처리 2027년 기동목표, 원재료 공급망 강화 EU 재활용 규제 선제 대응 포석 마련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내 최초의 한-유럽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을 설립한다. 유럽 내 원재료 조달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부터 판매, 리사이클까지 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및 환경 서비스 기업 데리시부르그(DBG)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의 지분 비율은 50대50이며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규 합작법인은 현지에서 수거된 사용 후 배터리 및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쇄·분쇄해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 '블랙 매스'를 만드는 전처리 전문 공장이다.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르 쉬르 우아즈에 오는 2026년 착공한 뒤 2027년 본격 가동을

시작하며 연간 2만 톤 이상의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 처리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전처리 과정으로 추출된 블랙 매스는 후처리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메탈로 재생산되고, 이후 양극재 생산과정을 거쳐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생산시설에 최종 공급된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생산 거점인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을 통해 제공된 배터리 공정 스크랩과 DBG가 프랑스 및 인근지역에서 수거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원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자동차공업회(ACEA)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15%를 차지할 만큼 배터리 수요가 큰 시장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자원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BG는 프랑스 메탈 재활용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프랑스 전역에 200여 개가 넘는 수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프랑스의 사용 후 배터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국의 운송이 까다롭고 운송 비용도 높아 원활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배터리 수요가 많은 지역 내 전처리 공장 설립이 중요하다"이라며 "프랑스에서의 이번 협력이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확대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유럽 배터리 재활용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행된 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로 의무화된다.

LG에너지솔루션 CSO(최고전략책임자) 강창범 전무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구축은 물론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서도 차별화된 기술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가치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포스코홀딩스

7억弗 그린본드 발행

에너지소재사업 탄력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채권을 발행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해외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4억달러 규모, 10년 만기 3억달러 규모의 2개 트랜치에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린본드는 ESG채권 중 하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2일 미국 트럼프 관세 부과 발표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발흥 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5년 및 10년 장기물 발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미래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차량 IVI 솔루션 첫선

미디어텍과 미래차 공략

LG전자가 대만 반도체 기업 미디어텍과 협력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IVI) 솔루션을 공개했다.

LG전자는 내달 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모터쇼인 '오토 상하이 2025' 미디어텍 부스에서 새로운 IV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IVI는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오락을 의미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차량용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LG전자는 미디어텍의 차량용 IVI 통합 시스템온칩(SoC) '디멘시티 오토 플랫폼'에 구글과 함께 개발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의 '동시 다중 사용자(CMU)' 솔루션을 탑재했다. /이혜민 기자

현대차, 북미 수소 상용차 시장 공략 본격화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개 및 조지아 'HTWO 에너지' 허브 구축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 신형 수소전기트럭을 선보이며 북미 수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정운송수단 박람회 'ACT 엑스포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주행 경험 등 기존 모델에 대한 북미 고객들의 피드백을 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했으며, 북미 지역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형과 기후 환경을 고려한 차량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 탄생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차량의 출력을 향상했고, 기존 북미 판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에 탑재되지 않았던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

탈 경고 ▲측방 충돌방지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새롭게 적용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수소는 물론, 전기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 에너지' 운영 계획도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HTWO 에

너지 서버너'를 조성한다. 대형 상용차 전용 시설로 운영되는 HTWO 에너지 서버너는 수소 생산과 공급, 충전 장비와 시설 투자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하이드로플릿(HydroFleet) 등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다.

HTWO 에너지 서버너는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약 17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인 하루 1200kg 규모의 수소 생산 및 충전이 가능하고, 수소 공급 능력을 일 최대 4200kg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해 24시간 운영되며, 향후 전기 충전 시설도 추가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올인원 세탁건조기' 10만대 팔렸다 수소 수송용 강관 국제인증 테스트 통과

하루 평균 230대 이상 판매



삼성전자 모델이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한 '삼성전자 AI 콤보' 세탁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1년 만에 국내에서만 누적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한 이후 하루 평균 230대 이상 판매하며 올인원 세탁건조기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았다고 29일 밝혔다. 출시 초기부터 3일 만에 1000대, 12일 만에 3000대를 판매하며 'AI 가전 = 삼성'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올인원 제품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중간에 옮길 필요 없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때보다 약 40% 공간을 줄일 수 있어 공간 활용도도 높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성능과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2025년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기존 대비 건조 용량을 3kg 키운 18kg로, 국내 드럼 세탁 건조기 중 최대 수준이다. 열교환기 구조 개선과 예열 기능 강화로 건조 시간도 20분 줄었다. 제품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용량을 늘려 공간 효율을 높였으며, 스마트홈 기능도 강화됐다. 세탁부터 건조까지의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AI 홈' 스크린과 더 똑똑해진 음성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혜민 기자 hyem@

현대제철 RINA-CSM 시험 통과

현대제철이 수소 수송용 강재 소재로 개발한 고기능 후판이 국제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은 자사의 고기능 후판이 적용된 수소 수송용 강관이 국제 인증 기관 RINA-CSM의 고압 수소 환경 테스트를 통과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소 배관 설계·시공 규격인 ASME B31.12 성능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테스트는 현대제철의 후판을 사용해 자회사인 현대스틸파이프가 수소 수송용 대구경 강관을 제작하고, 현대중합금속이 용접 재료를 담당하는 기술 협업으로 진행됐다.

3사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대구경 강관은 모든 시험 부위에서 우수한 결과를 기록해 고압 수소 환경에서 충분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의 수소를 생산지에서 수요지까지 이송하는 대구경 강관은 높은 압력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고내압·고인성 후판 강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국제 설계 기준인 ASME B31.12 규격을 만족하는 고성능 후판 강재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RINA-CSM 테스트 통과가 현대제철이 국내 철강업계 중에서 수소 인프라 관련 강재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성능 입증은 수소 시대를 대비해 현대제철이 축적해온 고기능 강재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검증 받은 사례"라며 "향후에도 현대제철의 고기능 후판을 수소 배관 및 저장 설비 등 다양한 인프라에 폭넓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QD-올레드 BI 공개

상표 출원 준비 착수

삼성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TV와 모니터 제품에 주로 탑재되는 'QD(퀀텀닷)-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BI는 QD-올레드의 첫머리 글자인 'Q'를 이미지화해 청색 올레드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QD-올레드 고유의 넓은 컬러 스펙트럼을 표현한 그라데이션 디자인을 적용했다.

QD-올레드는 2021년 말 처음 상용화된 이후 삼성전자, 소니, 델(Dell), 마이크로스타인터네셔널(MSI), 에이수스(ASUS), 에이치피(HP) 등 18개 글로벌 브랜드의 170개가 넘는 TV와 모니터 제품에 탑재됐다. /이혜민 기자